수급조절 한약재 "식품원료 반입 부당"

생약협 관계부처에 진정

수입엑스제와 식품원료 반입 건에 대한 농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생약협회는 진정서를 통해 『한약재료는 수입을 제한하고 식품원료로의 반입의 허용한다면 생산자보호라는 수급조절품목으 근본 취지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수급조절품목에 해당하는 약재에 한해서는 식품원료로의 반입 또한 마땅히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감초 등 91개한약재를 식품의 제조에 사용코자 식품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될 규격화가 정착되면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식품원료 수입금지 건의에 보건복지부장관 회신 내용

문서번호 : 식유 65430-818
시행일자 : 1995. 9. 19
수 신 : 사단법인 한국생약협회장
제 목 : 한약재 식품원료 수입금지에 대한 건의회신

1. 생약 8-264('95.9.6)호와 관련입니다.

2.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한 식품원료용 한약재와 의료의약품 한약재 엑기스 수입 제한 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식품원료 한약재 수입제한 및 불법 유출에 대하여

○현재 감초등 91개 한약재를 원료의약품용 및 한약재 용도로 수입코자 할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식품의 제조에 사용코자 식품원료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수입을 제한할 근거가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3년도에 식품용 한약재 수입제한을 위한 통합공고개정실무자회의(상공자원부, 복지부, 농림수산부)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결과 통합공고를 개정하는 것은 개별법의 근거가 미약하고 수입 개방된 품목등을 다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류토록 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리며,

○한약재 규격사업에 따라 황기등 36종의 규격대상 한약은 '96.1.1부터 제조, 포장된 규격품만 시중에 유통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가 확대, 정착되면 식품용 한약재의 의약품 전용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 수입한약재의 유출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조절 대상 한약재의 공매처분시에는 관세청이 미리 우리부 및 농림수산부와 사전협의토록 조치함과 아울러 앞으로 우리부는 농림수산부와 상호 협조하여 한약재 재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한약재 엑기스 수입제한 요청에 대하여

○수급조절 품목으로 지정된 한약재를 외국에서 엑기스로 수입하여 의약품원료로 사용하는 건의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한약재의 규격화 및 유통관리업무에 참고 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기고

성낙술 연구관
(농진청 작물시험장)

일본 생약농업의 현황

약용식물 재배기술 포럼에 다녀와서 (下)

일본의 생약재 수입

일본의 생약재 소비유형은 우리와 달라서 『한방약』을 제약회사들이 과립, 산제, 내복액등으로 제제화하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년간 소비량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생산이 부족하거나 전혀 생산되지 않는 품목, 또는 농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품목은 대부분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입량이 비교적 많은 품목만을 정리해 보았는데 연대성 생약재인 울금을 비롯하여 감초, 시호, 생강, 의이인(율무)이 수천톤씩 수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시호, 작약, 당귀, 율무는 제법 생산량이 많은 품목이나 수요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량을 수입에 의존하되 농가에서 생산되는 량은 충분한 값에 수매를 보장하고 있다.

품목별 출하형태 및 규격

일본은 추산지현의 생약조합들의 민간 단체가 생산, 판매를 알선 또는 관장하기 때문에 출하형태나 생산품의 규격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특히 보관중 변질을 우려하여 수분함량은 생산자 스스로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다. 지황은 크기별로 대·중·소로 구분하여 출하하며 작약도 근두부제거가 필수적이고 굵기도 최하 5㎜이상을 규격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중간상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제약회사 등에 납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자 스스로가 품질을 보증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런 규격을 엄격히 지키고 있다. 우리 농가의 출하형태나 규격을 생각해보면 한번쯤은 반성해 볼직도 하다.

생약재 유통 경로

우리의 생약재 유통은 다단계 구조에 의해 중간유통업자의 마진지출이 크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자 손으로부터 한단계를 거칠때마다 1㎏당 적게는 1백50원에서 크게는 5백원까지 유통마진이 붙게되어 생산자는 싼값에 팔고 최종소비자는 비싼값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생산량의 거의 전량을 농협이나 생약조합등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제약회사나 한약방에 납품하고 있다. 계약 년차나, 계약대상 방법은 품목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나 계약년차는 작게는 1년단위로 많게는 5년까지도 있으며 계약대상은 주로 면적과 단가에 대한 합의이며 계약방법은 구두계약도 상당량 있으나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용에 자금력이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 종사할 수 있으나 가끔 시중유통가가 높아질 경우 수요처인 제약회사와 가격을 놓고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있기하다.

연구기능

우리나라의 생약재 연구기능은 최근 들어 많이 보강되긴 하였으나 아직도 부진한 편이다.

일본은 우리의 제도와 달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후생성에서 연구기능을 맡고 있다. 후생성산하에 국립위생시험소(우리의 국립보건원)가 있고 국립위생시험소내에 생약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생약부에서 5개의 약용식물 시험장을 관계하고 있다.

일본열도는 한국 국토면적의 2배정도에 이르므로 위도에 따라 기상환경의 차이가 크므로 북쪽의 북해도 중심부인 쓰꾸바와 와까야마, 해양성기후인 이즈반도에, 최남단 섬인 다네가시다등 5개소에 시험장을 설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시험장의 연구인원의 절반이 농화전공자, 절반은 약학전공자로 구성되어 일하고 있으므로 우리보다는 훨씬 효율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실정으로는 국립보건원의 생약재연구기능을 대폭강화하든가 농촌진흥청에 별도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맺는말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일본의 생약재농사를 진단해 보았는데 일본 역시 국내 생산자보다 월등히 좋은 조건에 있는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근년 들어서는 중국과의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서 일본농가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농촌인구도 우리와 같이 노령화 되고 있으며 인건비 상승등으로 국제시장의 가격경쟁에서 자꾸 불리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요재배 품목은 정부의 도움없이도 생산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생산자단체등을 통해 대량소비처와 직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내수시장은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등의 정면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비의 대폭 절감을 통한 저가공급, 외관규격의 철저한 규격화가 선행되어 고품질의 청정약재를 생산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부지원을 통해서라도 생약협회라는 조직의 자금력을 강화하고 힘있는 단체로 육성하여 생산자가 그들속에서 안심하고 생약재배에 임할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도 요망된다.

안테나

운지버섯 인공재배 시험 성공

항암효과와 간염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구름버섯(일명 운지버섯)이 인공재배 시험에 성공, 새로운 소득작목을 찾고 있는 농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재배법은 사과나무나 참버드나무 원목을 20㎝ 크기로 절단, 살균한 다음 배양된 구름버섯 종균을 접종해 온도 섭씨 25도, 습도 85%에서 2~3개월 동안 균사배양 시킨다. 균사배양이 완료된 뒤에는 온도 25도, 습도 85~90%, 조도 5백 럭스 조건에서 매일 2~3회씩 물을 주면 구름버섯이 발생하게 된다.

경북도진흥원 윤영석 버섯연구실장은 『앞으로 우량종의 운지버섯 선발과 완전한 시설체계를 갖추는데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